원수님과 아이들

원수님과 아이들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4(2015)년

머 리 말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아이들이 건전한 사상의식, 폭넓고 깊은 지식, 건장한 체력을 지니도록 잘 키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과정에 언제나 후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매우 중시하시면서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국가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하시는 나날에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지니시고 후대사랑의 감동깊은 력사적화폭들을 끊임없이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언제나 학교와 탁아소, 유치원을 찾으시고 친부모도 다 주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시였으며 온 나라 아이들에게서 피여날 기쁨과 행복을 그려보시며 곳곳에 공원, 유희장들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또한 아동병원, 육아원, 애육원,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아이들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도 다 보아주시고 친어버이정을 담아 회답의 친필도 보내주시였으며 무엇이나 좋은것이라면 우선 아이들에게 안겨주도록 하시였다.

이 책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1(2012)년과 주체102(2013)년 두해동안에 온 나라 아이들을 위하여 걸음걸음 수놓아오신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전하고있다.

차　　례

1.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 · · · · · · · · · · · · · · · · 6

2.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 · · · · · · · · · · · · · · · · · · 14
1) 원아들의 부모가 되시여 · · · · · · · · · · · · 15
2) 원아들에게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 · · · · · · · 17
3) 《무엇을 좋아하느냐?》 · · · · · · · · · · · 19
4)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실들을
돌아보시며 · · · · · · · · · · · · · · · · · 22
5) 당부 · 25

3. 창전거리가 전하는 이야기 · · · · · · · · · · · 27
1) 중구역 창전소학교를 찾으시여 · · · · · · · · · 27
2) 경상탁아소에서 · · · · · · · · · · · · · · · 29
3) 경상유치원에 깃든 사랑 · · · · · · · · · · · · 30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떨어지면 · · · · · · 34
종합놀이실에서 · · · · · · · · · · · · · · · 36
놀이 평가하신 교양방법 · · · · · · · · · · · 39
지능계발에 깊이 관심하시며 · · · · · · · · · 42

4) 평양아동백화점을 어느때나
즐겨찾는 곳으로 · · · · · · · · · · · · · · · 44
완공을 앞두고 · · · · · · · · · · · · · · · 46
개점을 앞두고 · · · · · · · · · · · · · · · 51
5) 새집들이 축하 · · · · · · · · · · · · · · · · · 55

4.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를
전례없는 국가적행사로 · · · · · · · · · · · · 61
1) 대표선발과 대표증 · · · · · · · · · · · · · · 61
2) 특혜조치 · · · · · · · · · · · · · · · · · · · 66
3) 자신의 가까이에 앉히시고 · · · · · · · · · · · 73
4) 《자유주의자》가 소년단대표로 · · · · · · · · · 74

5.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 · · · · · · · · · · · · 78
조선소년단창립 67돐경축 소년단야영 · · · 82

6. 최전방시찰의 길에서 · · · · · · · · · · · · · · 84
1) 초도의 아이들을 위하여 · · · · · · · · · · · · 84
평양견학 · · · · · · · · · · · · · · · · · · 84
룡악산기슭에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 · · · · · · · · · · · · · · · · · 88
2) 가시는 곳마다에서 · · · · · · · · · · · · · · 90
7. 소년단야영소들에 새겨진
사랑의 자욱 · · · · · · · · · · · · · · · · · · 95

1)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여 ··················· 95
2)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꾸려주시려 ················· 100

8.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 107
1) 준공을 앞둔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며 ········· 107
2) 해빛밝은 탁아소 ·············· 111
3) 은하과학자거리에서 ············· 113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 ··········· 116
5) 옥류아동병원 ················ 119
6) 삼지연학생소년궁전 ············· 123
7)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도록 ·········· 125

9.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 128

10.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선물들 ······· 136

11. 인류의 칭송,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 ············· 140

1.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
주체101(2012)년 6월 6일］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전국련합단체대회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동무들!

나는 오늘 백두산기슭의 정일봉중학교로부터 조국의 최전방인 초도의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우리의 장한 소년단대표들과 모범소년단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여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대견한 모습과 정다운 얼굴들을 보니 동무들을 평양으로 뜨겁게 바래워준 소년단원동무들과 선생님들, 동무들의 부모형제들을 다 만나보는것만 같습니다.

나는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희망찬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속에서 6.6절을 맞는 대표동무들과 전국의 소년단원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애쓰고있는

선생님들과 온 나라 학부형들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6.6절은 조선소년단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소중한 명절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소년단원들처럼 수백만명모두가 붉은 넥타이를 매고 하나의 조직에 굳게 뭉쳐 앞날의 주인공들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학생소년들은 없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품어주는 고마운 당과 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있으며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며 뛰여난 재능으로 나라의 영예를 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미더운 소년단원들은 지난 시기에도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선소년단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년근위대와 소년빨찌산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나왔으며 자기 수령의 초상화를 목숨바쳐 지키고 불붙는 산림을 구원한 영웅적소행들도 우리 소년단원들속에서 처음으로 발휘되였습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은 《소년호》땅크와 《소년호》비행기, 《소년호》함선들을 인민군대에 보내주고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살림살이에도 보탬을 준 나어린 애국자들이며 기특한 꼬마건설자들입니다.

조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련의 나날에도 우리 소년단원들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학교-우리 초소운동과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애국의 땀방울을 흘려왔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어제날의 소년단원들이 오늘은 온 나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되고 나라의 큰일을 맡아보는 일군이 되였으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새 세대 소년단원동무들을 축하해주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처럼 훌륭한 조선소년단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수백만 소년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는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조선소년단이 오늘처럼 혁명의 계승자들의 힘있는 조직으로 세상에 자랑떨치게 된것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조선소년단이 걸어온 자욱마다에는 혁명이 전진하는데 맞게 소년단구호도 새롭게 제정해주시고 소년단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며 소년단원들을 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딸들로 키워주신 대원수님들의 따사로운 손길이 새겨져있습니다.

우리의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원쑤놈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지만 학생소년들을 끝없이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버이, 다심한 학부형이시였습니다.

대원수님들께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새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공화국의 영원한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나라의 제일 좋은 곳에 멋있는 소년궁전과 야영소들을 지어주시고도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 쓰시였습니다.

우리의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런 위대한 어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참으로 조선소년단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이며 이런 소년조직의 한 성원이 된것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

동무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것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동무들이 주인이 될 앞날의 강성조선은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 모두가 화목하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일것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를 다름아닌 소년단원동무들이 떠받들고 더 훌륭하게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은덕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우며 불멸의 태양기를 소년단기앞에 휘날리며 혁명의 피줄기를 꿋꿋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청년동맹이 우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척후대라면 소년단은 그 후비대입니다.

소년단원들은 항일아동단의 김기송, 김금순영웅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소년빨찌산들처럼 우리 당을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되여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소년단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철저히 준비하는것입니다.

앞날의 강성조선의 모습은 소년단원동무들의 성적증에 먼저 그려지게 됩니다.

우주로케트가 창공을 날고 CNC기계바다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에는 물론 최첨단에 오르게 될 래일의 우리나라에서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은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며 조국의 전진에 따라설수 없습니다.

학생소년들은 강성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그마한 짬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놀래우는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도 바로 우리 소년단원들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학생소년들은 공부도 잘할뿐아니라 사회주의도덕을 잘 지키고 언제나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과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체육도 잘하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모범소년단원이 되여야 합니다.

소년단조직생활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첫 정치생활입니다.

소년단의 붉은넥타이는 항일아동단의 붉은넥타이를 물려받은것이며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의 한 부분입니다.

소년단원들은 당원의 영예와 영웅의 금별메달도 붉은넥타이와 소년단휘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소년단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분단조직에서 준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뒤에는 학생소년들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며 정치적보호자인 소년단지도원선생님들과 분단지도원인 담임선생님들이 서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소년단지도원, 분단지도원선생님들을 크게 믿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선생님들이 항일의 아동단지도원들처럼 우리의 귀중한 소년단원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재능을 꽃피워주고 참답게 이끌어주는 뿌리가 되고 진정한 스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새 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울것이며 사랑스러운 우리 소년단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훌륭한 선군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

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축복속에서 6.6절을 맞는 전국의 소년단원동무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강대한 이 나라, 사회주의조국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에게도 다시한번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라!

2.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만경대혁명학원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부강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가들의 유자녀들을 위하여 세워진 학원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 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할 일이 많고많으셨지만 혁명의 길에서 먼저 떠나간 전사들의 아들딸들을 위하여 주체36(1947)년 10월 12일 유서깊은 만경대에 혁명학원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한평생 혁명학원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그들의 생활에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세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대원수님들께서는 학원원아들이 혁명에 충실하였던 부모들의 뒤를 이어 조선혁명의 기둥, 핵심골간으로 억세게 자라나도록 교육체계와 내용, 생활조건을 비롯한 학원의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조국의 미래인 원아들에게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원수님들의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시고 주체101(2012)년 설명절기간에

온 나라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에 잠겨있을 때 원아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1) 원아들의 부모가 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학원에 오시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삽시에 학원마당으로 달려나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며 설명절기간에 가볼데가 많았지만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울적한 기분에 잠겨 설날을 보내고있을 원아들을 생각하여 학원부터 찾아왔다고, 올해 설명절은 아버지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데 내가 원아들의 부모가 되여 명절을 함께 쇠야지 누가 쇠겠는가고 하시면서 만경대혁명학원구내에 들어서니 마치 고향집뜨락에 들어선것 같이 저도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폭풍같은《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는 원아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시고는 먼저 기념사진부터 찍자고 하시면서 환호하는 대렬앞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한겨울의 날씨는 어지간히 추웠으나 원아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였다.

원수님께서는 대렬 앞줄에 있는 한 학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정히 물으시였다.

《춥지 않나?》

《춥지 않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이 차다고 걱정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원아들이 추운데 왜 장갑을 끼게 하지 않았는가고, 어서들 장갑을 끼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발을 동동 구르는 다른 한 학생의 손을 잡으시고는 울지 말고 사진을 찍자고, 울면 사진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볼도 비벼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추운 날씨인데 왜 장갑을 끼지 않았는가, 귀중한 원아들인데 손발이 얼면 되겠는가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학원의 원아들로 말하면 대다수가 선군혁명의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혁명전사들의 자식들로서 그들가운데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도 모르고 자란 아이들도 있었다.

하기에 원수님의 품에 안겨들며 환호하는 원아들의 그 모습은 손꼽아 기다리던 친부모에게 달려가 안기는 자식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원수님께서는 원아들과 함께 있으니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뜨거운 추억을 더듬으시였다.

2) 원아들에게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운동장 량쪽에 있는 도서관과 회관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운동장바닥이 고르롭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원아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운동장으로 만들어주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해주어야 하겠는지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돌아보아야 하겠다고, 체육관이 불비하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꼭 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고 나오시자 하늘에서는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에 학원을 찾으시였는데 내가 학원에 오니 또 눈이 내린다고, 마치 고향집에 온것 같다고 깊은 추억을 더듬으시며 숭엄한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체육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생들이 다 들어올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저 롱구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한것을 위대한 장군님께 선물로 올린것인데 장군님께서 학원에 보내주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학생들이 무릎을 상하지 않게 롱구장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몸소 차디찬 바닥까지 맨손으로 쓸어보시고 눌러도 보시면서 바닥의 퇸성과 미끄럼정도를 가늠해보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롱구대에 부딪치면 상할수 있으니 보호막을 두툼히 치라고 이르시고 벽에 탁구판을 세워놓은것을 보시고는 체육기자재창고가 따로 없는것 같다고, 체육관을 확장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내가 오늘 학원에 체육관을 새로 지어줄 빚을 졌다고 말씀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후 주체103(2014)년 6월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종합체육관을 돌아보시면서 최상의 수준에서 잘 건설했다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멋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3) 《무엇을 좋아하느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식당에 들어서시였을 때 원아들이 한창 저녁식사를 하고있었다.

그날저녁 학원식당에서는 매주 별식계획에 있는대로 민족음식인 온반을 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탁에 놓인 간장병의 마개를 열어 몸소 간장을 맛보시였다. 너무도 소탈하고 겸허하신 모습으로 스스럼없이 간장맛까지 보아주시는 그이앞에서 수행한 일군들은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억제

하지 못하였다.

뜻밖에 그이를 뵈온 취사원들이 올리는 인사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기 전에 아이들에게 어서 국을 퍼주라고 하시며 래일 명기소를 보내주겠으니 국을 맛있게 끓여 잘 해먹이라고 친어버이심정으로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식사를 하고있는 1학년 학생들에게로 다가가시여 한 아이에게 허물없이 물으시였다.

《무엇을 좋아하느냐?》

《다 좋아합니다.》

《아니, 무엇이 제일 맛있는가.》

《다 맛있습니다.》

1학년 학생이라면 아직 철부지여서 원수님께서 물으시는 참뜻을 잘 리해하지 못하여 무작정 모든것이 다 맛있다고 대답하는것만 같아 학원책임일군이 참다못해 《아니, 밥, 국수, 떡중에서 무엇이 제일 맛있는가고 물으시지 않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한 원아가 《국수를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좋아한다는 대답들이 챙챙하게 울려나왔다.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국수를 좋아한다는 원아에게 다시금 물으시였다.

《국수를 좋아하면 떡은 싫어하니?》

《떡도 좋아합니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더니 다정하신 음성으로 다른 학생에게 《온반이 맛있느냐?》라고 물으시였다.

《예, 맛있습니다.》

한창나이때여서 음식이라면 가리는것이 없이 다 맛있다고 하는 애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라고 왜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없으랴.

하지만 아무리 철부지들이라고 해도 자기들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그이께 사소한 근심이라도 끼치고싶지 않아 묻고 또 물으시여도 그저 맛있다고만 말씀올리는 원아들이였다.

참으로 행복한 한가정의 명절식사분위기가 흐르는속에 원아들의 수저를 먼저 적신것은 국이 아니라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였다.

학원책임일군이 《최고사령관동지, 우리 학원에는 생일방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매우 반가운 표정으로 어서 가보자고 하시였다.

2층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갈하고 아늑하게 꾸려진 생일방을 만족하게 둘러보시며 어른들도 즐거울 때면 부모생각이 나는데 나이어린 학원학생들이 생일이 되면 부모생각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줄 때에는 학원일군들이 그들을 축하해주면서 부모들을 대신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4)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실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친어버이심정으로 학원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강실들도 차례로 다 돌아보시였다.

어느 한 강실에 들리신 원수님께서는 책상과 의자를 쓸어보시면서 이번에 학생책상의 구조형식을 해결해야겠다고 하시였다.

지리강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왜 사주가 표시되여 있지 않는가, 서해는 동해에 비하여 수심이 얕고 사주지형체가 발달한것만큼 꼭 표시해넣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면서 사판을 최상의 수준에서 잘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방법연구실에 들리시여 교육의 정보화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어디서 자료를 봉사받는가, 봉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시고 그만하면 괜찮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수재가 수재를 낳는다고, 교원들의 수준이 낮으면 안된다고 하시며 교원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교원대렬을 잘 꾸려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생물표본실을 돌아보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내주신 수십kg이나 되는 소매낙지와 가죽거부기, 넙치, 범, 큰곰, 백두산사슴 등 희귀한 동물들과 함께 만경대의 식물표본들이 짝 들어차있었다.

그이께서는 가죽거부기를 보아주신 다음 퇴화되여 꼬리가 없는 180kg짜리 물보가지를 보시고 꼬리를 다른 놈한테 먹히우지 않았는가고 하시며 우스개로 학원일군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였다. 그리고 범의 박제품을 두텁게 하겠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이제는 가죽이 굳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유쾌하게 웃으시며 일깨워주기도 하시였다.

강실들을 다 돌아보시고 소년단실과 청년동맹실,

학생침실과 회관까지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만경대혁명학원에 와보니 깨끗하게 잘 꾸리고 관리를 잘했다고, 오늘 전반적으로 만족하다고,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잘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5) 당 부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유자녀들의 전당으로 되게 하는데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학원의 책임일군에게 학원사업을 다른 단위들에서 잘 도와주는가고 물으시고 많은 단위들에서 학원을 잘 도와주고있다고 하는데 학원은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단위이므로 모든 단위들에서 응당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올해에 학원창립 65돐을 맞이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창립절을 뜻깊게 맞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원관리를 더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원을 떠나시기에 앞서 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우리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인 원아들을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학원을 돌아보니 빨찌산기풍, 붉은기기풍이 꽉 들어차있는데 괜찮다고, 만경대혁명학원에서 모든 학생들이 근본을 잊지 말고 혁명의 대를 억세게 이어나가도록 교육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학원을 전국의 본보기단위가 되도록 더 잘 꾸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학원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여기 와서 보니 끝까지 혁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가다듬게 된다고 하시며 학원을 혁명가유자녀들의 전당으로 더 훌륭하게 꾸려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둠이 깃들어서야 학원을 떠나시였다.

3. 창전거리가 전하는 이야기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종전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리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창전거리에 새로 건설된 탁아소, 유치원, 학교, 살림집들, 아동백화점 등은 주변경치와 조화롭게 어울려 배치되고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다 특색있으며 높은 질적수준에서 꾸려져있다.

1) 중구역 창전소학교를 찾으시여

중구역 창전소학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전후의 어려운 나날에 친히 터전을 잡아주시고 시범적으로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여러차례나 찾아오셨던 학교이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이 학교를 여러차례 찾아주시였고 창전거리건설을 발기하고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창전소학교를 새롭게 잘 꾸려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창전소학교 교구비품들을 새 학교건물에

어울리게 잘 만들며 콤퓨터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창전소학교건설정형을 자주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5월 30일 새로 일떠선 창전소학교를 찾아주시였다.

창전소학교에는 수십개의 교실과 각종 실험실, 교편물실, 콤퓨터학습실, 외국어학습실, 운동장 등 모든 교육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구비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에 들리시여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수령님을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 수령님앞에서 국어수업을 진행한 교원이 지난 58년간을 이 학교의 교원, 교장으로 사업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후대들을 키우는 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1층부터 4층까지 오르시며 교실들에 들리신 원수님께서는 책걸상은 어디서 만들었는가를 물으시고 학생들의 년령과 키에 맞게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복도를 지나시던 그이께서는 겨울철과 장마철에 학생들이 젖은 동복이나 비옷을 걸어놓을수 있게 옷걸이가 달린 장의자를 놓아주자고, 자신께서 가구를 잘 만드는 단위에 임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외국어학습실과 콤퓨터학습실에 들리시여서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기뻐하시였으며 넓고 시원한 강당을

돌아보시고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라도 더 훌륭한것을 마련해주시려고 깊이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려던 걸음을 돌리시고 운동장을 보자고 하시며 운동장을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2) 경상탁아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새로 건설된 경상탁아소를 찾으시였다.

창전거리에 새로 훌륭히 일떠선 경상탁아소에는 젖먹이방, 교양방, 잠방, 물놀이장, 종합놀이장, 지능놀이장 등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에 필요한 온갖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건물안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귀여운 아이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는가 걱정되시는듯 몸소 허리를 굽히시고 아이들의 작은 키에 맞게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층계를 오르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잘해놓았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젖먹이2반과 여러 교양방, 지능놀이장을 돌아보시면서 비품들과 시설물들을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귀엽고 깜찍하게 꾸려놓았다고 기뻐하시였다.

젖먹이2반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겨울철에도 어린이들을 잘 키울수 있게 방안온도를 보장할수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베란다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지 않는가도 살펴보시였다.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몸소 허리굽혀 바닥을 짚어보시며 좀 찬것 같다고, 앞으로 난방을 돌린다 해도 겨울에 가봐야 진짜로 평가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며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이어 교양1반에 들어서신 원수님께서는 개별옷장들도 몸소 열어보시고 이불장안에 있는 어린이용베개 하나를 드시고 앞뒤로 돌려보시면서 어린이들의 천진한 모습이 떠오르시는듯 환히 웃으시였다.

또한 물장구치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꾸려진 1층 물놀이장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물깊이도 알아보시고 깨끗하다고, 좋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탁아소의 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세심한 손길로 친어버이사랑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실 사랑이 더 없는가를 가늠해보시듯 오래도록 탁아소의 마당을 뜨지 못하시였다.

3) 경상유치원에 깃든 사랑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조기음악교육기지로 발전하여온 경상유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서 어린이들의 심리와 시대의 미감에 맞게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를 훌륭히 실현한 본보기유치원으로 일떠섰다.

지난 기간 경상유치원에서는 많은 음악신동들이 자라났다.

그들가운데는 국내공연무대에서 관중의 절찬을 받으며 이름떨친 어린이들도 있고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이름난 음악수재들도 있다.

뽈스까에서 열린 제20차 국제청소년쇼빵피아노경연에서 경상유치원의 나어린 연주가들이 1등상, 특별상을 받은데 이어 로씨야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9차 국제축전에서는 이 유치원어린이들로 구성된 기타4중주단이 파문을 일으켰다.

유치원건물의 외형은 마치 두팔을 한껏 벌려 자식을 따뜻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을 련상시킨다. 유치원에는 교양실, 전과실, 률동홀, 공연준비실, 잠방, 강당, 식사실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의 교육교양과 생활에 필요한 온갖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보석주단을 깐 중앙홀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들이 사철 리용할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지하물놀이장, 운동놀이실 그리고 야외관찰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국가의 시책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바닥재를 맵시있게 깐 바닥이며 매 층의 천정에서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대형무리등, 깜찍하게 설계된 아치형책상과 의자, 잠방의 침대들, 복도벽의 공간을 리용한 여러가지 장식과 천정의 별장식들은 그야말로 동심에 잘 어울린다. 또한 어린이들의 식사보장을 위해 설치된 승강기와 물가열기, 난방설비 등 유치원의 모든 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전거리에 새로 일떠선 경상유치원을 주체101(2012)년에 두차례 찾으시였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떨어지면

주체101(2012)년 5월 30일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여 유치원건물을 바라보시며 특색있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던 원수님께서는 문득 놀이터와 마당을 둘러보시다가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피치로 산뜻하게 포장된 마당과 그네를 비롯한 몇개의 놀이기재들이 설치된 놀이터…

원수님께서는 유치원앞마당을 모두 피치로 포장하였는데 놀이터에까지 포장을 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이 저렇게 바닥을 피치로 포장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 떨어지면 상할수 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후 유치원에서는 넓은 마당에 고무깔판을 깔아주고 잔디밭을 조성하였으며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유희기재들을 더 설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7월 14일 또다시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였다.

마당에서는 어린이들이 유희기재들을 타면서 좋아라 웃기도 하고 고무깔판우에서 무릎싸움을 하며 신이나서 뛰여놀고있었다.

귀여운 남녀어린이가 경애하는 원수님께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리며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의 앵두같은 두볼을 정답게 다독여주시고는 그들의 손목을 잡고 유치원마당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께서는 유치원앞마당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운동장에 고무깔판을 깔고 놀이터에 록지를 조성해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어린이들이 운동장과 놀이터에서 뛰놀다가 넘어져도 상하는 일이 없게 되였습니다.》

그이의 모습은 참으로 친부모의 다심한 모습이였다.

종합놀이실에서

7월 14일 경상유치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신 다음 2층에 있는 종합놀이실에 들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5월에 오시였을 때와는 몰라보게 달라진 종합놀이실을 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종합놀이실은 소꿉놀이칸, 병원놀이칸, 그림붙이기놀이칸, 조립놀이칸, 농촌풍경칸으로 꾸려져있었다.

원수님께서는 동심에 맞게 잘 꾸려놓았다고 기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소꿉놀이칸에서는 어린이들이 저희들끼리 아빠, 엄마가 되여 재롱스럽게 놀고있었다.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집안세간살이놀이에 필요한것들이 다 갖추어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병원놀이칸에서는 하얀 위생복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꼬마의사가 간호원차림을 한 어린이와 함께 앉아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를 해주고있었다.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병원놀이칸은 진짜 병원같이 꾸려놓았습니다. 병원놀이칸에서 어린이들이 진찰하는 시늉도 하고 치료하는 시늉도 하는데 제법입니다.》

원수님께서는 꼬마의사앞으로 다가가시여 자신의 팔소매를 올리시며 말씀하시였다.

《내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봐주렴.》

그 말씀에 방금전까지 의사흉내를 곧잘내던 어린이는 동그란 두눈에 의문을 가득 담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옆에 있던 원장이 아직 혈압이라는 말을 모르는 어린이들이여서 진찰을 해달라고 해야 알아듣는다고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웃으시며 다시 물으시였다.

《어디가 아픈지 나도 한번 진찰해주렴.》

꼬마의사는 그제서야 청진기를 원수님의 팔에 대보고나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일군들에게 진찰하는 어린이에게 내가 어디를 아파하는것 같은가고 물으니 어디가 아픈가고 되물어본다고, 그런것을 보면 어린이들이 눈치가 말짱하다고 정겨운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이어 종합놀이실의 한쪽에 꾸려져있는 농촌풍경칸으로 향하시였다.

도시에서 자라는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농촌풍경에 대한 표상을 주기 위해 꾸려진 이 칸에는 고추밭, 가지밭, 오이밭, 딸기밭도 있고 갖가지 과일나무밑에는 알낳는 암닭이 앉아있는 벼짚닭장과 병아리우리도 있었다. 그리고 금시 캐낸듯 한 감자와 고구마도 있고 농촌에서 흔히 쓰는 호미, 삼태기를 비롯한 소농기구들도 갖추어져있었으며 집안에 달아맨 메주덩이, 싸리울바자에 매달린 조롱박까지 있었다.

원수님께서는 구수한 흙냄새 나는듯 한 농촌풍경을 유심히 살펴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전번에 경상유치원에 왔을 때 앞으로 유치원을 더 잘 꾸려놓겠다고 하기때문에 잡도리가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유치원을 멋있게 꾸려놓은것을 보니 정말 마음에 든다고 치하해주시였다.

높이 평가하신 교양방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낮은3반교양실에 들리시였을 때 그곳에서는 어린이들이 크레용으로 저저마다 자기의 재간을 그림종이에 담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첫번째 책상앞으로 다가가시여 어린이가 그림그리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시였다.

거의 완성되여가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둘러보시는 그이께 유치원원장이 잘 그린 어린이들의 그림은 솜씨판에 붙여준다고 말씀드렸다.

솜씨판에 붙여진 그림과 그우의 빨간별을 보신 원수님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교양실에 솜씨판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을 붙여놓거나 글을 쓰게 하고 그우에 있는 별판에 매 어린이들을 평가하는 빨간별을 경쟁도표식으로 붙여놓게 하였는데 아주 잘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시기부터는 경쟁심이 생기는것만큼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경쟁을 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원수님께서는 2층계단으로 오르시면서 계단 량쪽에 올라가는 발자국과 내려가는 발자국이 깜찍하게 찍혀져 있는것을 보시고 이렇게 해놓으니 어린이들이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 표식을 밟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우측통행질서를 저절로 지킬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를 지킬데 대한 교양을 자연스럽게 하고있습니다.》

3층복도벽에 붙여놓은 악보를 보시고는 나무로 악보장식을 해놓은것은 아주 잘하였다고 하시며 어린이들이 복도로 다닐 때에도 그 악보를 보면서 음악공부를 할것이라고 하시였으며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복도를 이어주는 란간앞에 들국화장식을 한것을 보시고 아주 좋다고, 어린이들이 란간에 매달려 장난을 하다가 떨어질수 있기때문에 들국화장식을 해놓았다는데 머리를 많이 썼다고 치하하시였다.

바닥과 벽, 천정의 공간들을 잘 리용하여 여러가지 장식과 직관물들로 훌륭히 꾸려놓은 유치원의 교육환경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최대로 계발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경상유치원을 돌아보니 동심에 맞게 아주 잘 꾸렸다고, 경상유치원의 모든것이 다 멋있고 특출하다고 하시며 거듭 치하하시였다.

지능계발에 깊이 관심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상유치원을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관심을 돌리신것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고 재능을 키워주는 문제였다.

어린이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유치원시기는 조기교육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재능의 싹이 발견되고 본격적인 교육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어린이들의 지능을 어떻게 계발시키고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가 하는데 따라 앞으로 인재육성의 질적수준이 중요하게 좌우된다.

경상유치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령전조기음악교육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주신 교시에 따라 주체68(1979)년 5월부터 조기음악교육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되였다.

5월에 유치원을 찾으시였을 때 어린이들의 지능교육에 좋은 새로 나온 그림책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는것을 아시고 친히 많은 량의 그림책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원수님께서는 7월에 또다시 찾아주시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사랑의 선물도서들을 싣고오시였다.

선물보관실에 들리시여 선물악기들과 설비, 《세계명작동화집》을 비롯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유치원에 보내주신 많은 선물들을 둘러보시던 원수님께서는 문득 수행한 한 일군에게 오늘 가지고온 동화그림책들

을 빨리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오늘 그림수수께끼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아동도서들을 가지고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어린이들이 그림수수께끼책같은것을 많이 보아야 사물현상들을 고찰하고 분석판단하는 능력을 키울수 있습니다.》

높은5반교양실을 찾으시였을 때 어린이들이 조선말공부를 한창 하고있었는데 원수님께서는 교양원의 이야기를 깊은 감동속에 들어주시고 맨 앞자리에 앉은 어린이의 글씨도 보아주시며 곱게 쓴다고 칭찬해주시였다.

4층에 있는 운동놀이실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자기 취미에 맞는 운동놀이를 하면서 마음껏 뛰노는 어린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다가 롱구놀이구획으로

가시여 어린이들이 공을 넣을 때마다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고 공을 제대로 넣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다가서시여서는 몸소 공넣는 동작도 해보이시며 이런 때는 꽂아넣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기도 하시였다. 력기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을 보시고는 힘장수들같다고 추어주시고 유희기재를 타는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재미나는가고 다정히 묻기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념사진을 찍고싶어하는 어린이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여 그들모두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으며 어린이들이 준비한 공연도 보아주시면서 앞으로 훌륭한 음악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이날 유치원을 떠나시기에 앞서 자신께서 오늘 경상유치원을 다시 돌아본것은 유치원을 학령전 어린이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고 재능을 키워줄수 있게 잘 꾸리고 운영하는 문제가 중요하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4) 평양아동백화점을 어느때나 즐겨찾는 곳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깊은 관심속에 세워지고 꾸려져 지난 수십년동안 아동용상품을 전문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하였던 평양아동백화점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상업봉사기지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변모되였다.

1층에서는 사탕, 과자, 껌을 비롯한 당과류들과 음료들, 갖가지 체육기자재들과 학용품, 코스모스머리빈침과 놀이감들, 자전거, 애기밀차 등을 판매하며 백화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각종 빵들과 청량음료를 봉사하고있다.

2층에서는 쪽무이놀이감들과 담요, 여러가지 편직제품들과 내의류, 양말, 어린이위생용품들과 가정용품들을 판매한다. 3층에도 역시 색갈고운 색동옷과 놀이감들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상품들이 가득차있다.

매층마다 부모들과 함께 온 어린이들을 위한 실내놀이터들이 훌륭히 꾸려져있으며 계단승강기들이 설치되여있어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하고있다.

완공을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5월 완공을 앞둔 평양아동백화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동행한 일군들에게 아동상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상품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문 오른

쪽으로 전개하게 될 매대자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시면서 평양아동백화점에 상품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아동백화점의 매장면적이 상당히 넓으므로 필요한 상품을 지표별로, 수요별로 보장하자면 간단치 않을것이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평양아동백화점에서는 학습장이나 연필같은 학용품과 어린이옷같은 아동상품을 많이 차려놓고 팔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기재와 놀이감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것은 다 팔아주어야 합니다. 다른 상점에 가서 사지 못하는 아동상품도 이 백화점에 와서는 다 살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하는 아동백화점에서 놀이감은 매우 중요한 상품들중의 하나이다. 해당 부문에서도 놀이감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었지만 개업할 때가 다 되여오도록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2층매장들을 다 돌아보시고 3층계단을 오르시던 원수님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완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는 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공장이 생산을 시작하면 놀이감문제는 풀릴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행한 일군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색에 대한 감각을 주고 지능을 계발시키는데 필요한 놀이감을 만들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런것만큼

완구공장은 어린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놀이감을 만들수 있는 생산공정부터 먼저 꾸려놓고 공장을 점차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에서 차려놓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상품매대를 바라보시던 원수님께서는 건물안에 공간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공간을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고, 아동백화점을 찾아오는 어린이들이 지능놀이기구를 리용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게 매 층마다 놀이터를 잘 꾸려주자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백화점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리는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동백화점을 새로 꾸릴바에는 세계적수준에서 꾸려야 합니다. 아동백화점의 매 층에 놀이터를 꾸려놓고 부모들이 매대를 돌아보며 상품을 사는동안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매 층에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꾸린다고 하여 방을 따로 꾸릴 필요는 없다고, 매 층의 홀이나 어느 적당한 곳에 일정한 구획을 정해놓고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시설을 차려놓으면 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백화점에 상품을 채울 생각만 하면서 놀이터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하지 못하였다. 매장배치설계를 할 때 부모들을 따라오는 아이들을 위해 자그마하게 면담장소나 교양장소를 꾸리자고는 생각하였지만 실내놀이터를 전개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아동백화점을 돌아보시고 계단을 내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문너머로 주변의 풍치를 둘러보시며 아동백화점은 정말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평양아동백화점이 아주 좋은 곳에 자리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만수대언덕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과 장군님의 동상은 물론 만수대지구와 모란봉이 한눈에 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밖으로 나서시여 지척에 바라보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르시고 푸른 숲 우거진 모란봉과 웅장화려하게 솟은 창전거리가 한눈에 안겨오는 주변풍치를 둘러보시고나서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아동백화점이 자리잡은 곳은 정말 명당자리입니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런 명당자리에 아동백화점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만수대지구를 다시 꾸리면서도 이 자리에 개건하도록 해주신것만 보아도 우리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한평생 끝없이 사랑해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후대관이 얼마나 숭고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주체48(1959)년 4월 경상골(당시)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왕들인 아이들을 위하여 아동백화점을 건설하자고 하시면서 경치좋은 이곳에 터전을 잡아주시고 훌륭히 완공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평양아동백화점이 완공되였을 때에는 여러차례 찾아주시고 아동백화점에는 아이들에게 필요한것은 무엇이나 다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운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2(1963)년 1월 백화점을 찾으시여 학생들이 쓰는 학습장을 좋은 종이로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학생멜가방을 보아주시고 메는 가방은 한쪽 어깨에만 부담을 주게 되므로 어린 학생들의 발육에 지장을 준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에게는 메는 가방보다 지는 가방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던 시련의 나날에도 백화점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여러가지 어린이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가득히 채워놓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전거리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할것을 구상하시면서 평양아동백화점을 원래의 명당자리에 더욱 훌륭하게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아동백화점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지면적은 그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화점을 다녀가신지 얼마후 아동백화점에 아동차와 미끄럼다리, 버섯집, 기차굴, 동물모형흔들이차, 야자섬을 비롯하여 수많은 실내놀이터용 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개점을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7월 평양아동백화점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1층으로부터 3층에 이르는 아동백화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아동백화점이 어린이들과 인민들이 어느때나 즐겨찾는 장소로, 어린이들의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는 상업봉사기지로 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갖가지 상품들이 보기 좋게 진렬되여있는 1층의 여러 매대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꾸린 놀이터앞에 이르시였다.

빨갛고 노랗고 파란 갖가지 색갈의 아름다운 미끄럼다리와 3단레루미끄럼단차, 팔각형수영장놀이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놀이터를 잘 꾸렸다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평양아동백화점에 오게 되면 놀이터부터 먼저 찾을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3층에 꾸려진 놀이터에는 여러 놀이기재들과 자석도형맞추기완구, 길찾기완구, 집쌓기완구를 비롯한 지능놀이감들이 있었다.

원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수행한 일군들에게 새 완구공장을 건설할 때까지는 평양아동백화점에 번호따라 조립하는 완구를 비롯한 놀이감들을 당에서 보장해주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느 한 단위에서 견본으로 들여온 쪽무이그림맞추기를 비롯한 완구들을 평양아동백화점에 보내주어 매대에 차려놓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그 완구들이 자연풍치를 그린 쪽무이그림맞추기와 동물을 형상한것들인데 견본이므로 수량은 많지 않지만 모두 평양아동백화점에 보내주어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질좋은 아동용상품들을 더 많이 봉사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학용품매대를 돌아보시면서 크레용과 학습장, 그림종이의 질에 대해 료해하시고 상품들의 질이 높지 못하고 가지수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내의매대와 신발매대를 돌아보시며 수행일군들에게 경공업공장들과 상품보장단위들에서 어린이신발과 양말, 내의를 비롯한 상품들을 아동백화점에 진렬만 해놓아서는 안된다고, 해당 단위들에서 조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용품과 어린이옷을 비롯한 상품들을 더 많이 질좋게 만들어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원수님께서는 체육기자재매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축구공, 롱구공, 배구공, 정구채, 바드민톤채를 비롯한 갖가지 체육기자재들을 보시였다.

체육기자재들이 진렬되여있는 매대에는 자그마한 완구탁구채도 있었다.

원수님께서는 손바닥 절반만 한 탁구채를 살펴보시며 이런 탁구채는 더 작게 만들어 자동차열쇠고리같은

데나 달아가지고 다니게 기념품매대에서 팔아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에게 이 탁구채가 형식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우리는 이런 형식주의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쓸모있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옆에 있는 코스모스머리빈침매대로 걸음을 옮기신 원수님께서는 풀색머리띠를 보시며 《기호품을 지금처럼 만들어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호품을 하나 만들어도 시대적미감에 맞으면서 우리 사람들의 미적감정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앞으로 코스모스머리빈침과 체육기재를 비롯한 상품들의 질과 모양, 색갈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창광률동놀이감매대로 가시여 여러 놀이감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지금은 어린이들도 수준이 높아졌기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에서 만든 지능완구를 요구하고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백화점건물밖으로 나오신 원수님께서는 견본으로 들여온 완구들을 하루이틀사이에 보내주겠으니 그것들을 매대에 차려놓고 어린이들의 눈길이 어느 완구에 쏠리는가, 그에 대한 수요가 어떠한가 하는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백화점의 일군들에게 아동백화점이 어린이들과 인민들이 어느때나 즐겨찾는 장소로서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는 상업봉사기지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5) 새집들이 축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9월초 훌륭히 일떠선 창전거리에 새집들이한 살림집들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가족이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가고있는 교육자가정인 평양기계대학 교원 심동수의 가정을 찾으시였다.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방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매 방들을 다 돌아보시고나서 방안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집을 찾아갈 때에는 성냥을 가지고 가는것이 우리의 풍습이지만 성냥만 들고올수 없어 가정용품들도 마련해가지고 왔다고 하시며 액정텔레비존과 그릇 등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명작동화집》들도 가지고왔는데 그것들은 잘 보관하였다가 앞으로 손주들이 태여나면 주라고 이르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이런 궁전같은 집이 차례질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사랑의 선물

까지 가슴가득 안겨주시니 정말 고맙다고 말씀올리는 집식구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아야 하는 교육자가정은 응당 새 집에서 살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후대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묵묵히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교육사업을 중시하며 교육자들을 내세우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에게 바치는 교원들의 열정이 당장은 빛이 나지 않지만 먼 후날에 가서는 꼭 알찬 열매로 빛을 내게 된다고, 여기에 와보길 정말 잘하였다고 하시며 축배도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3층 2호에서 살고있는 중구역 도시미화사업소 로동자 박승일의 가정을 찾으시고 많은 시간을 아이들에게 바쳐가시며 그들이 훌륭히 성장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원수님께서는 감격에 겨워 인사를 올리는 식구들에게 새집들이를 한 동무들을 축하해주러 왔다고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를 물으시고 모두가 로동자들이라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둘째아들앞으로 다가가시여 그 애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이름은 무엇인가, 몇살인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고 물으시였다.

이름은 박훈이고 나이는 8살이며 김성주소학교 2학년 1반에 다닌다고 말씀드리자 원수님께서는 훈이의 손목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가시여 집주인들과 바닥에 허물없이 앉아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박훈을 무릎에 앉히시고 집안에 아들이 한명뿐인가고 물으시였다.

맏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 부부에게도 축배를 부어주시고 액정텔레비존, 그릇, 어린이용도서 등을 안겨주시였다.

너무도 평범한 로동자가정이 이 좋은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은것만 해도 분에 넘친데 몸소 찾아오시여 축하해주시고 많은 기념품들까지 안겨주시니 꿈만 같은 현실앞에 로동자부부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하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윽고 원수님께서는 훈이의 손목을 잡으시고 아이들의 방으로 가시였다.

방안을 둘러보시고 책상앞으로 다가가신 원수님께서는 책상우에 있는 도화공작교과서와 학습장을 드시고 한장한장 펼쳐보시였다.

모양이 어설픈데다가 크레용칠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림들을 보시며 맨 마지막장을 펼치신 원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그림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학교꽃밭에 물을 주는 남학생과 녀학생의 모습을 그리다가 채 못그린 그림이였다. 그것을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대조해보신 원수님께서는 훈이를 자신의 곁에 세우고 그림을 짚어가시면서 여기에 꽃밭을 그려야 하는데 꽃밭에는 빨간꽃과 노란꽃도 그려야 한다고, 형님의 다리도 마저 그리고 옆에 있는 누나도 그려야 한다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며 훈이는 오늘중으로 이 그림을 꼭 완성하여야 한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맏아들 박원이 집으로 돌아와 원수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원수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어디에 갔다가 늦어왔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축구소조에 갔었다는 씩씩한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축구를 잘해? 나하구 한번 축구를 해볼가?》라고 허물없이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박원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면서 또 물으시였다.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느냐?》

《꼭 축구선수가 되겠습니다.》

《맏아들이 앞으로 축구선수가 되겠다는데 결의가 좋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이 집의 아들들을 보니 참 대견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원수님께서는 몸소 가지고 오신《세계명작동

화집》들가운데서 그림책 한권을 뽑아 첫장을 펼치시여 훈이에게 읽어보게 하시고 지능계발그림책을 펼쳐드시고는 훈이의 부모들에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많이 시켜야 합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보게 하는것이 아이들의 지능발전에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훈이에게 앞으로 이 책들을 매일 한권씩 읽고 감상문을 써놓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맏아들 원이의 등을 두드려주시며 공부도 잘하고 축구훈련도 잘해서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라고 하시였으며 곁에 서있는 훈이앞에 이르시여서는 채 그리지 못한 형님, 누나랑 꽃밭의 꽃이랑 다 그려서 오늘중으로 그림을 완성하라고 다시한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2층 1호에 사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인 로력영웅 문강순의 신혼부부가정도 찾으시고 태여날 아기도 축복해주시였다.

결혼식을 한지 2개월만에 새 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혼생활이 재미있는가, 앞으로 자식은 몇이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웃으시며 물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들도 낳고 방직공영웅인 어머니를 닮은 딸도 낳겠다는 세대주의 이야기에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신혼부부에게 축배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으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을 방문기념으로 주시였다.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신 원수님께서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 그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살라고, 창전거리를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들려 태여난 아이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4.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를 전례없는 국가적행사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의 결정체이며 후대사랑의 최고정화이다.

2만여명이나 되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아들딸들이 수도에 초청되여 여러날동안 다채로운 경축행사들과 참관을 진행하였다.

1) 대표선발과 대표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5월초 조선소년단창립절에 즈음하여 소년단원들이 있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모범소년단원들을 선발하여 평양에 데려다가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를 하고 참관과 공연관람도 조직할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다.

그 말씀을 받아안고 처음에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방도를 찾지 못하여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철부지들이라고 할수 있는 그 많은 대표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데려오며 숙식은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섰던것이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의 착잡한 생각을 헤아려보시고 수송수단과 숙식조건, 공연관람에 이르기까지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수도 평양에서는 주체101(2012)년 6월초 소년단원들의 대경축행사가 전국의 모든 학교들에서 선발된 2만여명의 소년단대표들의 참가하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에 초청하는 소년단대표들의 구성으로부터 행사규모와 기간, 참관일정과 휴식조직, 운수수단보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온갖 특전을 다 돌려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행사에 참가할 대표들은 평범한 로동자, 농민, 군인, 과학자, 기술자의 자녀들가운데서 부모들의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경위같은 것은 따지지 말고 철저히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을 기본으로 선발하도록 그 대상과 기준까지 몸소 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들은 평범한 가정들에서 선출되였다.

그들가운데는 자기 가문에서 평양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해본 사람이 한명도 없거나 아버지가 현재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집 자식들도 있었으며 부모없는 학생들도 있었다.

대표들속에는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랑의 축복을 안겨주신 광명성제염소 종업원의 딸 류소금도 있었고 장군님께서 주체100(2011)년 10월《평양처녀》라고 다정히 불러주신 대흥종합식당 로동자 리영옥의 자식도 있었다. 또한 주체101(2012)년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훌륭한 인간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신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채광공이였던 박태선영웅의 자식도 있었다.

자강도 성간군 구봉령의 고후회도 소년단대표로

선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봉령의 도로관리원들을 찾아주시였을 때 엄마품에 안겨 잠든채 기념사진을 찍었던 갓난아기, 그 애가 자라 어느덧 소년단열성자로, 손꼽히는 최우등생으로 되여 소년단대표로 선출되였다.

자강도 우시군과 랑림군의 세쌍둥이들도 소년단대표로 선출되였다.

전국적으로 소년단원들이 공부하는 모든 학교들에서 다 대표들이 선출되였으며 대표들은 해당 학교 소년단원수에 비례하여 선발되였다.

륙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섬분교들에서 비록 분교의 학생수가 적다 해도 1명을 반드시 대표로 선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섬마을들이 감격에 휩싸였다.

라선시 우암동 토리마을에서도 대표가 선출되였다. 라선시 우암동은 조선에서 섬을 내놓고는 가장 북동쪽에 위치한 고장이며 그속에서도 토리마을은 참으로 외진 곳이다.

토리분교 소학생인 황선향이 대표로 선발되였을 때 로동자인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기 힘든 조국땅 한끝에 사는 우리 자식까지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게 될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얼마전에는 당의 배려속에 온 마을사람들이 새로 지은 문화주택에 새집들이를 하였는데 련이어 이런 큰

은정을 받아안았으니 정녕 자그마한 우리 토리마을에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의 빛발은 따사로이 비쳐들고있습니다.》

온 토리땅이 감격에 끓었다. 어찌 토리마을뿐이랴.

심심산골 벽동군의 창주분교를 비롯한 소년단원이 몇명 안되는 분교들에서도 대표들이 선발되였다.

량강땅의 외진 산골분교들에서만도 100여명의 모범소년단원들이 대표로 선출되였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 2명의 학생들을 위해 교원이 있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삼수군의 일자봉분교에서는 지금 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데 거기서도 대표가 선출되였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조선소년단창립경축행사대표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에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로 들끓었다.

6월 2일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소년단대표전원이 수도 평양에 모였다.

평양에 도착한 소년단대표들은 근로인민의 자식들을 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경축행사에 대표로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대표전원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모셔진 대표증이 수여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진 대표증,

이것은 선군혁명의 후비대인 소년단원들에 대한 최대의 믿음의 표시였다.

2) 특혜조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대표들이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수 있도록 모든 특혜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소년단대표들을 대축전장으로 데려오기 위한 사업이 당과 국가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표들이 학교에서 떠날 때부터 도, 시, 군들에서 환송사업을 크게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소년단대표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비행기와 특별렬차, 뻐스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그리운 평양으로 떠나는 소년단대표들을 부모들과 선생님들,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고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열렬히 환송하였다.

수도 평양은 소년단대표들을 맞이하기 위한 환영열기로 들끓었다.

소년단대표들은 평양에 도착하여 떠날 때까지의 전기간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축하를 받았다.

온 나라가 환영열기로, 경축분위기로 들끓었다.

소년단대표들은 모든 조건이 다 보장되고 최상급의 준비를 갖춘 4.25려관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이 특급대우를

받으며 숙식하였다. 경축행사에 참가한 대표들을 위한 은정어린 조치들이 련이어 취해졌다.

평양에 도착한 첫날부터 소년단대표들은 크나큰 환희에 넘쳐 즐거운 참관의 날을 이어갔다.

아직은 초청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응석받이 철부지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귀빈대우를 받고 교통보안원들의 거수경례까지 받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대표들은 항일아동단의 김기송, 김금순영웅들과 전화의 나날 소년빨찌산들처럼 강성조선의 참된 소년혁명가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수영관과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창전거리 등을 돌아보며 소년단원들은 륭성번영하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슴에 새겨안았으며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 등으로 자라날 희망과 포부를 가다듬었다.

대표들은 지덕체자랑무대에도 참가하여 새 세대들에게 만복을 다 안겨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전하였다.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수십m높이의 탑꼭대기로 솟구쳐올랐다가 내려꽂히는 급강하탑이며 곡선주행거리를 쏜살같이 내달리는 관성비행차와 회전그네 등을 타는

대표들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다.

바다물이 출렁이고 갖가지 물고기들이 유유히 오가는 수족관과 물개놀이장, 희귀한 동물들이 가득한 선물동물관, 코끼리사와 맹수사, 원숭이사들을 비롯한 중앙동물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수십종의 장미꽃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장미원과 바나나, 야자나무를 비롯한 열대지방식물들이 자라는 식물박물관, 세계5대륙 인민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칭송하여 삼가 올린 진귀한 꽃과 나무들로 들어찬 선물식물온실 등 중앙식물원도 참관하였다.

웅장화려한 평양대극장과 평양교예극장을 비롯한 극장들에서는 만수대예술단과 국립교예단, 평양인형극단 등의 즐겁고 유쾌한 공연이 이채롭게 펼쳐져 학생소년들에게 끝없는 랑만과 희열을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하루에도 몇차례나 소년단대표들의 참관과 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필요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소년단대표들을 위한 보장성원들은 참으로 많았다.

대표들이 도착한 때로부터 의료일군들은 그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돌렸고 밤에도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하여 많은 일군들이 숙소에 찾아와 아이들이 이불을 차던지지 않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등 세심한 관심을 돌렸다.

매일밤 아이들의 단잠을 지켜 숙소일군들과 관리원들은 지성을 기울였다.

선생님들은 뛰지 말고 천천히 걸으라고, 참관과정에

앞대렬을 따르느라 뛰여가다 넘어지면 상할수 있다고 타일러주었다.

6월 6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계시며 창립절을 맞는 소년단원들을 축복해주시였다.

오전에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축하연설을 하시였으며 오후에는 소년단대표들과 함께 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창립절을 더 즐겁게 쇠도록 해주자고 하시며 축포를 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공연에 이어 아이들의 기쁨과 희열이 가실새없이 밤하늘에는 희한한 축포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여기저기서 환호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황홀하여 여기저기 뛰여달리는 바람에 소년단지도원선생님들은 그날 저녁 혼잡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간 품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6월 7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2만여명이나 되는 소년단대표들을 위하여 무려 수십번이나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러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명기소와 칠색송어를 보내주시여 아이들이 인상에 남게 맛있게 먹도록 해주시였고 행사기간에 생일을 맞는 260여명의 소년단대표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크나큰 은정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체 대표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이뿐이 아니였다.

원수님께서는 동심세계를 잘 반영하여 창작된 3편의 노래도 보급하도록 하시고 행사기간에 발행된《소년신문》을 긴급히 더 찍어 대표들이 떠나갈 때 가지고 가도록 하시였다.

3) 자신의 가까이에 앉히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와 공연관람때 자신의 가까이에 만경대혁명학원 원아와 초도의 소년단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로동자와 자매도 등대원의 자녀를 앉혀주시였다.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주석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오른쪽옆에 앉은 만경대혁명학원제복을 입은 장현일은 훈련도중에 희생된 군관의 아들이며 왼쪽옆에 앉은 최은심은 서해안전방초소인 초도를 지키는 군관의 딸이다.

공연관람때 원수님의 오른쪽옆에 앉았던 림향의 아버지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열처리직장 로동자이고 왼쪽옆에 앉았던 맹성혁의 아버지는 자매도의 등대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소년단넥타이를 매여드린 최설경의 아버지는 함경북도 온성군의 교원이며 원수님께 꽃다발을 드린 김일국의 아버지는 평범한 군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크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고 물으시자 림향은 과학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최설경은 의사가 되겠다고, 김일국은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인민군대가 되겠다는 김일국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사복무를 하고 제대되면 무엇을 하겠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제대되지 않고 일생

군사복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옆에 있는 군대의 책임일군들에게 그 대답을 기념으로 사진을 한번 더 찍으라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일국이는 원수님과 기념사진을 찍고도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과 또 사진을 찍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국이에게 너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면 총정치국장의 전우가 되고 총참모장의 전우가 될것이며 또한 최고사령관의 전우가 된다고 사랑과 믿음을 담아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4) 《자유주의자》가 소년단대표로

경축행사기간에 소년단대표가 한명 더 추가된 이야기가 있었다.

김일성경기장에서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진행되기 직전에 행사장밖에서 서성거리던 여돌찬 한 소년이 행사에 참가시켜달라고 눈물을 떨구며 버티고 서서 떼를 쓰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행사를 맡아보던 일군들이 아무리 얼리고 엄포를 놓아도 평안북도에서 수백리길을 달려왔다는 그 소년은 먼데서라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한번만 뵈옵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생억지를 부렸다.

평양산원에서 태여났다고 하여 할아버지가 김평산이라고 이름 지어준 그 소년은 평안북도의 한 소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서 철부지라고 할수 있는 어린 나이였다.

그는 소년단대표자격을 받지 못한것이 너무도 아쉬워 눈물이 글썽해있었다. 그러다가 6.6절은 소년단원들의 명절인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있는 할머니네 집에 가서 먼발치에서나마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를 구경하고 오겠다고 떼질을 써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왔던것이다.

6.6절을 하루 앞둔 날 평산이가 평양을 향해 기차로 떠났다는 전화를 받은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역으로 달려나간 할머니는 어깨가 축 처졌어도 소년단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기차에서 내리는 평산이를 반겨맞고는 날이 어두워지는데 빨리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였다.

하지만 손에 꽃다발을 정히 안고온 소년은 먼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부터 찾아뵙겠다고 하였다.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린 소년은 할머니에게 대표들이 든 숙소에 찾아가 통사정을 하겠다고 떼를 썼다.

너무나도 억이 막힌 할머니는 그러지말라고, 그러면 못쓴다고, 왔던김에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이랑 중앙동물원이랑 다 돌아보고 놀다가 가라고 얼리기도 하고 으름장도 놓았지만 소년은 시뚝해서 그 말을 들은체도 하지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밤 모대기던 평산이는 다음날

아침 거리로 나오다가 멋진 뻐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련속 들어가고있는 소년단대표들의 대렬과 맞다들게 되였다.

소년은 행사장앞에까지 달려와서 무작정 참가시켜달라고 졸라댔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였다.

좀 큰 학생이라면 대표증이 없이는 못참가한다고 타일러주고 돌려보내면 되겠지만 아직은 규률이란 개념을 잘 모르는 철부지 아이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하여 일군들은 이 사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그대로 보고드리였다.

뜻밖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수백리길을 달려온 당돌한 소년의 애타는 마음을 너그럽게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자고 하시며 즉석에서 대회에 참가시키도록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것이 바로 대회가 시작되기 10분전에 있은 일이였다.

김평산소년에게 즉시 대표증이 수여되였다.

이렇게 되여 력사적인 대회에 참가하는 소년단대표는 한명이 더 늘어나게 되였다.

그날 평산이는 련합단체대회에 참가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음악회를 관람하였으며 밤하늘가에 연방 터져오르는 희한한 축포구경도 하였다.

다음날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떠나올 때에는 《자유주의자》로 왔던 한 소년이 당당한 대표로 되여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것이다.

평산이는 렬차에서 내리는 길로 군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환하신 영상을 우러러 향기그윽한 꽃바구니를 드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다하며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고 절대로 자유주의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5.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사회주의강성조선의 새 아침이 찬연히 밝아오고있는 희망찬 시기에 조선소년단창립 67돐을 맞으며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가 주체102(2013)년 6월 6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전국각지의 소년단조직들에서 추천된 모범적인 소년단대표들과 학생소년지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연초소 군인들의 자녀들과 평양시내 학생소년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이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고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였다.

1.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2. 조선소년단규약개정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 참가한 영광에 대하여 토로하였으며 지덕체의 5점꽃을 활짝 피워온 자랑과 당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억척의 마음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표들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박수를 보내시였다.

이어 둘째 의정이 토의결정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대표들이 앞으로도 소년단조직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존엄높고 강대한 백두산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의 대오로 더욱 억세게 다져나가는데서 언제나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쁨과 행복에 겨워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대표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시였다.

대표들은 평양시안의 여러곳들을 참관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7돐경축 소년단야영

후대들을 위한 일을 나라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67돐경축 소년단야영을 전례없이 큰 규모에서 성대히 진행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6월 4일에 시작되여 10일까지 진행된 야영에는 최전연섬초소군인들의 자녀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농민들의 자녀들, 섬분교의 학생들을 포함한 8 100여명의 소년단원들이 참가하였다.

온 나라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선생님들의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조선소년단창립 67돐경축 소년단야영에 참가한 소년단원들의 가슴가슴은 커다란 기쁨에 설레였

으며 그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는 맑고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국의 모든 소년단야영소들에 야영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하라고 피아노를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한평생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학부형이 되시여 나라의 제일 좋은 곳에 멋있는 궁전과 야영소들을 지어주시고 학생소년들에게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사랑 그대로이며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아이들의 학교길, 야영길을 지켜주시려 선군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헌신 그대로이다.

6. 최전방시찰의 길에서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제일 좋은것을 선참으로 안겨주시려고 온갖 은정을 다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최전방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서도 뜨겁게 펼쳐졌다.

1) 초도의 아이들을 위하여

평양견학

주체101(2012)년 3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서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초도방어대를 찾으시였다.

얼음도 채 풀리지 않은 배길을 헤쳐 초도를 다녀가신 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섬마을에 공훈국가합창단을 보내여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하늘땅을 진감하는 군가포성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명기소를 보내주시고 고급당과류며 식료품들도 섬마을의 집집마다에 보내주시였다.

초도를 다녀온 일군들로부터 섬마을아이들이 평양을 몹시 그리워하고 평양견학을 하고싶어한다는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일 좋은 계절에 그들이 평양에 올라와 견학도 하고 야영생활도 하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초도의 학생들은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평양견학의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초도의 학생들은 섬마을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정일봉소년호》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였다.

평양에 도착한 그들은 제일 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부터 찾았다.

초도의 새 세대들이 왔다고, 정말 반갑다고 환히 웃으시며 품에 안아주실것만 같아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르는 학생들의 두볼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의 나이는 15～16살, 그들대다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풍랑사나운 배길을 헤치며 초도를 찾으시였던 그해에 태여난 학생들이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들이 초도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새 세대로 성장하였다.

《아버지장군님, 초도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속에 초도는 영원히 해빛넘치는 섬이 되였습니다.》

초도의 학생들이라는것을 알고 참관지들마다에서는 그들을 뜨겁게 대해주고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오가는 대화도 뜨거웠다.

원수님께서 초도에 오셨던 그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조수정학생을 둘러싸고 사연을 묻는 사람들, 세상에 없는 감동적인 화폭을 남긴 군인가족들에 대해 묻는

길손들, 병영밖에서 어머니와 함께 만세를 부르고있는데 그이께서 손저어주시는 바람에 쏜살같이 달려가 그이 곁에 다가섰다는 이야기,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가 원수님의 야전차바퀴자욱이 찍힌 흙을 정히 싸서 주머니에 간수하였다는 이야기, 그날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속에는 취사원인 자기 어머니도 있었다는 이야기 등…

이런 축복받은 초도의 새 세대들이여서 더욱 정이 가고 사랑이 간다고 교통보안원들과 평양안경상점종업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학습장, 원주필, 당과류 등 물자들을 가슴가득 안겨주기도 하고 그들과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모란봉구역에 사는 김선비할머니는 11종에 근 200그루에 달하는 나무모를 안고 찾아와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적이 깃든 초도를 더 아름답고 푸르게 하는 일에 이바지하고싶다고, 내 마음 담아 초도에 심어달라고 부탁했다.

중앙동물원과 개선청년공원유희장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진사들은 무료로 사진을 봉사해주었으며 옥류관에서는 그들을 귀빈으로 맞아주었다.

불밝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는 유희기구에 그들을 먼저 태워주었고 중앙동물원에서는 동물재주관람 등 모든 봉사를 친절하게 해주었다.

한 학생은 평양견학의 행복한 나날을 기쁨과 즐거움속에 보내면서 일기에 이렇게 썼다.

…

어디가나 환대해준다.

평양견학의 나날을 영원히 추억속에 간직하라고 나라에서는 촬영가선생님들을 보내주었다. 식탁은 또 얼마나 풍성한지 너무도 배가 불러 혁띠를 풀어놓는 동무들도 있었다.

초도가 땅이 커서 이름이 났는가? 온 나라,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영웅이나 유명한 인물이 나서 이름이 났는가? 아니다. 우리 장군님덕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세상에 이름이 난 초도이다.

나는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초도의 아들이다…

룡악산기슭에 울려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초도는 6월 중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수백명의 소년단원들이 한꺼번에 만경대소년단야영소로 야영을 가는 경사로 하여 또다시 들끓었다.

5월에는 아이들의 평양견학으로 흥성거린 초도가 6월초에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 대표참가로 하여 들썩이고 이번에는 또다시 초도의 모든 소년단원들이 야영을 가는 경사를 맞이하였다.

온 섬이 떨쳐나 격정속에 그들을 바래주었다.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섬마을녀인들은 물론 바다와 같이 억세다는 지휘관들과 병사들도 끝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소년단대표로 참가했던 최은심을 비롯한 학생들도 낯익은 평양에로의 길에 다시 오르게 되였다.

뭍에서는 멋들어진 뻐스가 이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이렇게 평양에 도착한 초도의 학생들은 매일매시각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심장에 새기며 꿈만 같은 야영의 나날을 보내였다.

매끼 마주앉는 식탁에도 아늑한 잠자리에도 평양견학을 포함하여 이례적으로 세워진 야영활동과정안에도 초도의 학생들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은정이 뜨겁게 깃들어있었다.

만경대고향집이며 대성산혁명렬사릉, 중앙동물원, 개선청년공원유희장, 옥류관…

가는 곳마다에서 초도의 소년단원들이라고 따뜻이 맞아주었다.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이 더 뜨겁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 야영생들의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음식을 성의껏 준비하고 아이들의 포근한 잠자리를 돌보는 야영소교직원들의 지성 또한 극진하였다.

아직 나이는 어려도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있기에 초도의 소년단원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정중히 꽃다발을 드리고 삼가 인사를 올렸다.

등산과 다채로운 유희오락, 체육경기, 군중무용 등으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낼수록 보답의 맹세는 더욱 불타올랐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창덕학교시절에 자주 오르시였던 로정을 따라 룡악산에로의 등산길에 오른

초도의 나어린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조국을 빛내이는 참된 소년근위대가 될 결심이 더욱 굳게 자리잡았다.

야영의 나날 초도학생들은 한결같이 마음속으로 웨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초도는 온 나라가 알고 부러워하는 자랑높은 섬으로 되였습니다.

평양의 관문 섬초소를 지켜가는 아버지들처럼 우리도 어서 커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인민군대가 되겠습니다.)

2) 가시는 곳마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8월 17일 이른아침 작은 목선을 타고 풍랑을 헤치시며 연평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인 장재도방어대를 찾으시였다.

당시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강행하려는 위험천만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북침핵전쟁연습책동으로 하여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전투준비에 여념이 없던 군인들은 그처럼 위험한 곳에 작은 목선을 타고 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놀라움과 기쁨, 무한한

격정속에 맞이하였다.

꿈같은 행복에 접한 군인들이 눈물속에 터쳐올리는 폭풍같은《만세!》의 환호가 망망한 바다우로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군인들이 열광적으로 터치는 환호소리에 달려나온 섬방어대 군인가족들도 앞을 다투어 원수님의 품에 안기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방어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서있는 아이들의 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며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 물으시였고 태여난지 6개월된 정향명어린이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포성을 들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지킬 투사들로 억세게 자라고있는 어린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군인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3월 7일 장재도방어대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이때로 말하면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강행한《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던 준엄한 시기였다.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병사들을 찾아 최대열점지역인 장재도방어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접보고를 올리는 방어대장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첫 수여식에 참가하였던 방어대장을 보았다고, 장재도방어대 군인들이 보고싶어 다시 왔는데 모두들 건강한 몸으로 잘 있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이날 원수님께서는 군관 정금철동무의 가정을 방문하시여 지난해 8월 이곳을 찾으시였을 때 품에 안아주시였던 정항명어린이를 다시 만나주시고는 항명이의 모색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새 큰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어린 몸에 군복을 입고있는 모습이 귀여우시여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항명이의 첫돌이 어제였다는것을 미리 알고왔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9월초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천도개벽을 이룩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면서 저저마다 품에 안기는 섬초소어린이들의 볼을 다정히 쓸어주시며 이름은 무엇인가, 몇살인가를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아이들은 조국수호의 포성을 들으며 자라는 선군혁명의 증견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잘 키우라고 은정깊은 당부를 하시였다.

그리고 정항명어린이를 한품에 안으시고 지난 3월이 돌이였는데 그새 많이 컸다고 기뻐하시였다.

종전의 건물들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꾸린 병영과 살림집, 진지들을 돌아보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 군인가족별로 그들이 살게 될 새 살림집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리고 방어대장의 딸인 송현희어린이의 독창과 독연도 웃음속에 들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였다.

이어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목메여 《만세!》를 부르는 섬초소의 군인들과 군인가족

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고 방어대 군의 조정호동무의 외손자 장포성어린이를 한품에 안아주시며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와 꼭같이 천도개벽을 이룩한 무도영웅방어대를 돌아보시며 볼수록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6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무도유치원과 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순위고급중학교 무도분교도 찾아주시였다.

여러 방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재도방어대에 있는 3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돌아보면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이런 유치원과 학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일떠설수 있는 세상에 다시 없을 요람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월내도방어대를 찾으시여서도 유치원과 학교를 돌아보시고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더 잘 꾸려주라고 당부하시였다.

7. 소년단야영소들에 새겨진 사랑의 자욱

1)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시여

천하절승 묘향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에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다 돌려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산을 모르고 자라는 평양시어린이들을 위하여 묘향산지구에 소년단야영소를 건설하고 등산을 많이 조직하면 그들을 몸과 마음이 다같이 준비된 나라의 역군으로 더 훌륭히 키울수 있다고 하시면서 몸소 야영소터전을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건설되여 주체63(1974)년 4월 15일에 첫 입소식을 한 야영소는 지난 수십년간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과외생활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였다.

주체102(2013)년 5월 19일 야영생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고있는 야영소에 경사가 났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몸소 정해주신 등산로정을

밟으며 즐거운 야영의 하루를 보내던 평양시안의 여러 초급, 고급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였던것이다.

이날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야영소에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야영생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을 새겨보시며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신분은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중학교시절에 야영생활을 하는것은 일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을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모신 명제판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뜻깊은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 나라의 경치좋은 곳들에 소년단야영소들을 일떠세워주신 수령님의 후대사랑의 력사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침실, 등산지식보급실, 소년단실, 문화선전실, 선물보관실, 음악실, 식당, 회관을 비롯한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소년단원들의 야영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침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도보장은 어떻게 하는가, 침구류공급과 세탁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보시면서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아이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보살펴주시였다.

등산지식보급실을 돌아보시면서는 아이들이 야영기

간에 동식물채집도 하면서 풍부한 산지식을 체득할수 있게 잘 꾸려야 한다고 이르시였고 소년단실에 비치된 탁상자료들을 보시고서는 여러가지 교양 및 상식자료들을 실용성있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국심은 청소년시기에 싹트고 자라나는것만큼 애국주의의 본질과 진수를 잘 알고 실천에 구현할수 있도록 모든 야영소들에 애국주의교양실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과학영화를 보여줄수 있는 텔레비존시청실, 록화보급실도 꾸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선물보관실에도 들리신 원수님께서는 선물들을 주의깊게 보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였다고 하시였다.

일군들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화면음악반주기재와 텔레비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문화오락기재들과 피아노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구내를 걸으시며 나무도 많이 심고 걸음길에 청석도 깔아주어 산골짜기에 자리잡은 야영소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야영생들의 식사보장을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고 기초식품은 물론 고기와 알, 남새 등을 규정량대로 공급해주는 체계를 바로 세우며 현대적인 주방설비도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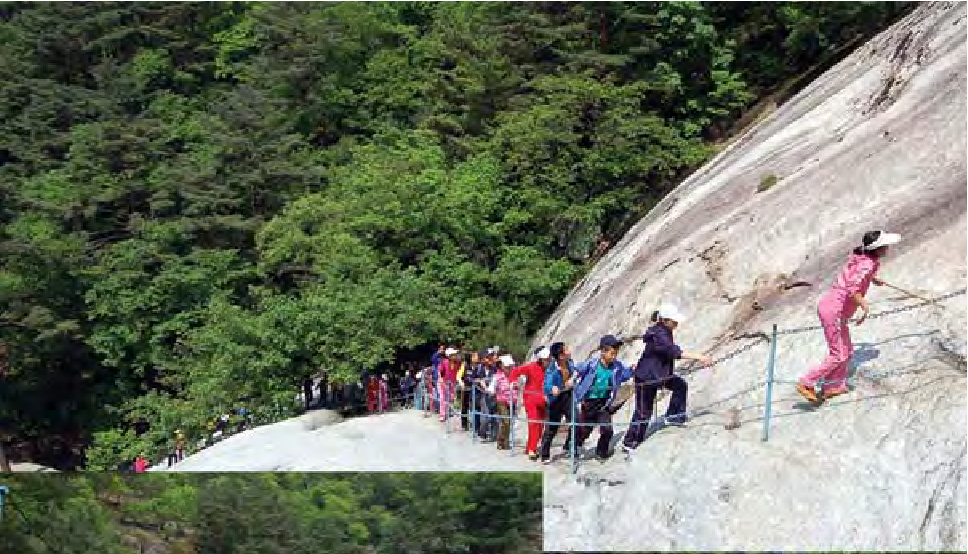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잘 먹고 마음껏 뛰놀아야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웃음소리가 더 높아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회관에 들리신 원수님께서는 비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새로 꾸려줄 때 일식으로 잘 갖추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를 돌아보신 다음 이곳 야영소를 새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시묘향산등산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것은 한평생 아이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그들을 위해 열과 정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을 풀어드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개건이 아니라 새로 건설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즐겨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와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후대들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크나큰 로고와 은정깊은 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군 한다고 하시며 이곳만이 아니라 전국의 야영소들과 소년궁전, 소년회관들도 훌륭히 개건하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전국의 야영소들을 개건보수할 때 산을 낀 야영소는 산지의 특성에 맞게, 바다를 낀 야영소는 바다가의 특성에 맞게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설계를 잘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 설계집단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소년단야영소를 잘 꾸리기 위해서는 시공단위들을 잘 선정해야 한다고,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로 건설상무를 조직하고 야영소를 잘 꾸려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여러 학교의 소년단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꾸려주시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5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조선에서 규모가 제일 큰 야영소로서 여기에는 2개의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물놀이장, 뽀트장, 운동장, 전자오락실, 음악실, 해양지식보급실, 해수욕장 등이 갖추어져있었다.

이 야영소는 주체48(1959)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야영소이며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새로 건설해주시였고 나라앞에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주체82(1993)년 3월에 몸소 찾아오시였던 뜻깊은 곳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야영소구내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돌아보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여야 한다고, 야영소를 개건할 때 아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태양상으로 형상하여 다시 잘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호실을 비롯한 야영각의 여러 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한방에 몇명씩 드는가, 어떤 비품들을 구비하고있는가를 알아보시고 더 좋은 가구와 텔레비죤을 놓아주자고 그리고 동심에 맞게 색갈과 문양이 고운 벽지를 붙여주며 야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게 난방과 전기보장대책도 잘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베란다에 나가시여서는 소나무숲과 바다를 바라보시며 참 좋다고 하시며 정상운영, 정상관리, 정상보수체계를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야영각의 홀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멋있다고 하시며 건축형성을 잘하였다고, 20년전에 지은 건물인데도 구조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건물은 해당시대를 반영할뿐아니라 100년, 5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제친선소년회관을 돌아보시면서 내부장식을 잘하며 회관복도에 긴 의자를 놓아주자고 하시였다.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이 편리하게 국제공용어로 표기된 안내판도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번에 몇명이 식사를 하는가, 부식물공급체계는 어떻게 세워져있는가, 주방설비들은 어떻게 구비되여있는가를 하나하나 료해하시였다. 해양지식보급실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야영생들이 해양지식뿐아니라 동식물지식도

습득할수 있게 여러가지 표본들을 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영소의 운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를 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앞으로는 겨울철에도 운영하여 아이들이 새로 건설되는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도 탈수 있게 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물놀이장과 뽀트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보장대책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알아보시고 자신께서 현대적인 물놀이설비를 보내주겠으니 마음먹고 잘 꾸려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운동장을 돌아보시면서 륙상주로를 꾸려주고 축구장바닥에 인공잔디를 깔아주며 배구와 롱구를 비롯한 체육운동을 할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새롭게 갖추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구내에 있는 구호들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후대사랑을 전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와 같은 구호들을 써붙이자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수욕장을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해수욕을 할수 있게 탈의실과 조약대, 현대적인 샤와설비를 갖추어주며 해수욕장에 모래가 쌓이지 않게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소의 교양마당을 새롭게 꾸리고 걸음길포장을 다시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였으며 야영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륜전기재도 마련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야영소를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오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다시 일떠섰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준공식이 주체103(2014)년 5월 2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현대적인 야영각들이 바다풍치와 조화되여 절경을 펼친 야영소는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방불케 하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 야영이 5월 10일에 시작되였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마음껏 야영을 즐기는 학생소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는 동해명승지의 자랑을 더해주며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8. 숭고한 미래관을 지니시고

1) 준공을 앞둔 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며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는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만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야외빙상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11월초 준공을 앞둔 인민야외빙상장과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드넓은 공간에 시원하게 펼쳐진 얼음판우에서 스케트를 타는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모습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첨단기술이 도입된 빙상장을 꾸려놓으니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스케트를 탈수 있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지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스케트를 타는 어린이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이 3살부터 6살밖에 되지 않는다는것을 아시고서는 아이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나이는 몇살인가, 스케트를 타는것이 좋은가 등

다정히 물어주시고 대해주시는 친어버이사랑에 아이들은 《원수님! 사진을 찍어주십시오.》라고 응석을 부리였다.

원수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음깎는 기계의 성능도 알아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리용할수 있기때문에 얼음을 제때에 깎아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으며 빙상장밖에서 스케트를 신고 다닐수 있게 고무깔판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미 5월에 인민야외빙상장이 자리잡고있는 대동강기슭에 로라스케트장을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착공의 첫 삽을 박은 군인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로라스케트장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하였다.

로라스케트장에는 로라호케이장, 기교장 등이 그쯘히 꾸려져있어 이곳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마음껏 운동도 하고 충분한 휴식도 할수 있게 되여있다.

드넓은 공지에 특색있게 꾸려진 로라스케트장으로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본주로의 한바퀴 길이는 얼마인가,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일일이 물으시고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로라스케트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로라스케트타기는 사시절 진행할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시면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원수님을 맞이한 기쁨속에 몸둘바를 몰라하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을 보신 원수님께서는 어서 운동을 하라고 손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바람이 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속에 4살밖에 안되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아이들이 있는것을 보시고 시내를 돌아보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로라스케트를 타는 모습을 보았다고, 로라스케트타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흐르도록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의 랑만에 넘친 모습을 웃음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라스케트장을 잘 꾸렸다고, 마음에 든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이윽고 로라스케트장을 돌아보시고 떠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이

《만세!》를 부르며 따라나섰다.

옮기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격정에 겨워 발을 동동 구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어린이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 해빛밝은 탁아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하여 주체102(2013)년 6월 현대화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기초식품공장의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기에 앞서 먼저 찾으신 곳은 동화속의 궁전처럼 꾸려진 공장탁아소였다.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신 원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고 그들의 손도 하나하나 잡아주시였다.

1층에 아기자기하게 꾸려진 채광실, 주방, 식당, 지능놀이실들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층으로 올라가시였다.

젖먹이1반에 들어서시였을 때 자그마한 요람에서는 아기가 잠을 자고있었다. 그이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아기의 잠자는 모습을 한참이나 보시다가 잘 자거라 하고 조용히 이르시였다. 순간 잠자던 아기가 반짝 눈을 떴다. 티없이 맑은 눈동자에 태양의 모습이 비껴드는 순간 아기는 방그레 웃음지었다. 그 아기를 보시는 원수님의 안광에 환한 웃음이 피여났고 삽시에 온 세상은 그늘 한점없이 밝아지는듯 싶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꾸려진 식당,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아기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이 떠오르는듯 한 방들에 들리시여 벽체처리를 잘하였다고, 아주 잘 꾸렸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탁아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음을 먹고 꾸린것이 알린다고 하시며 이 탁아소를 정말 잘 꾸렸다고 다시금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처럼 바쁘신 시간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세심히 마음쓰시고 옷자락에 매달

리는 어린 아이들을 따스히 품에 안아 자애로운 어조로 말씀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천만군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열렬한 후대사랑을 느꼈고 보다 부흥할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보았다.

3) 은하과학자거리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과학자들을 위한 은하과학자거리가 새로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9월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였다.

은하과학자거리는 1 000여세대에 달하는 21개호동의 다층살림집들, 학교, 병원,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 16개의 장소에 꾸려진 아동공원, 소공원들, 각종 편의봉사시설들로 이루어지고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건설되였다.

과학자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은하탁아소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지능계발을 위해 탁아소로 들어가는 걸음길에 써놓은 수자들을 보시고 환히 웃으시며 착상을 잘했다고 평가하시였다. 그리고

탁아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동심에 맞게 잘 건설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물놀이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물에 손을 담그시고 온도가 맞춤한가를 알아보시였으며 주방과 식사실에 들리시여 아이들의 영양관리에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탁아소를 정말 잘 꾸렸다고 하시며 이곳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은 아무런 걱정없이 맡은 일을 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지능놀이장에 들리시여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잘 꾸렸다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잠방에 들리시여서는 잠자리가 편안한가를 헤아려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자그마한 문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종합놀이장에 들리시여 바닥의 재료는 어떤것을 썼는가를 알아보시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하시였으며 녀성들속에서 아이를 더 낳아 이런 훌륭한 탁아소에서 키워보아야 하겠다고 한다는 보고도 웃음속에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식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자라도록 모든 조건을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한 은하1유치원을 돌아보시였다.

운동장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무판을 깔아놓은것을 보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마음껏 뛰여놀수 있을것이라고,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물놀이장, 높은2반, 높은5반, 낮은5반과 무용실, 잠방, 식당 등 유치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방들을 섬세하고 재미나게 잘 꾸렸다고 하시며 기뻐하시였다.

잠방에 들리시여서는 2층으로 된 침대를 만져보시고 잘 만들었다고 하시였으며 무용실에 들리시여서는 교육교양에 필요한 비품들은 다 갖추어져있는가, 부족한것은 없는가를 물으시였다.

또한 식당에 들리시여 의자의 높이도 몸소 가늠해보시였

으며 야외에 설치해놓은 여러가지 유희기구, 운동기구들을 보시면서 볼수록 마음에 든다고, 시공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성의껏 노력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한 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소학교를 보시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은하과학자거리에 일떠선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에서 미래의 과학자들이 자라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교육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자들은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데서 뿌리가 되여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후대교육사업의 합법칙적요구와 나라의 교육현실, 세계교육발전의 추세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고 그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9월 25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다.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여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공화국이 교육강국,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힘차게 발전해나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공화국정부가 실시하여온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의 심화발전이며 중등일반교육체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매우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어 새 세대들에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의무교육이다.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학교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며 5년제소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성장발육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주어 중등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게 한다.

3년제초급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중등일반기초지식을 배워주며 3년제고급중학교에서는 중등일반지식을 완성시키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실에 써먹을수 있는 기초기술지식을 배워주게 된다.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제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교육제도이다.

새로운 의무교육제에 의하여 학생들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폭넓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졸업후 사회에 진출하여 자립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있게 되였으며 교육의 내용과 질적수준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새로운 의무교육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모두에게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전기간 교육을 주는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제이며 교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한 무료교육제이다.

5) 옥류아동병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일떠선 옥류아동병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기지로서 모든 면에서 훌륭히 꾸려져있다.

지능놀이감으로 탑을 쌓아놓은듯 한 6층짜리 병원건물은 동심에 맞는 건축미를 느끼게 하고 평양산원과 마주한 병원의 모양은 마치 어머니품에 안긴 아기와도 같아 따뜻한 정을 자아낸다.

건물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주단처럼 펼쳐져있고 각이한 주제의 조각상들과 분수도 있다.

아동병원에 꾸려진 모든 치료실, 검사실, 입원실마다에는 첨단의료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고 수술실들은 무균화, 무진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가 매 과별로 세분화되여있으며 한번 입원한 어린이에 대하여서는 일체 모든 검사를 요구하는대로 해준다.

이곳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병력서에만 이름이 있는것이 아니라 병원에 꾸려진 교실들의 출석부에도 이름이 오르게 된다.

병원에는 《중학교실》, 《소학교실》, 《유치원교양실》이라는 간판을 단 교실들이 아담하게 꾸려져있어 어린이들은 병원에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을 다같이 받게 된다.

병원의 여러곳에 꾸려진 실내놀이장들과 휴식장들에는 미끄럼대를 비롯한 놀이설비와 기구 등이 일식으로 갖추어져있으며 야외놀이장도 꾸려져있다.

뿐만아니라 먼거리의료봉사실과 멀리 지방에서

구급환자들을 후송해올수 있는 직승기착륙장까지 마련되여있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7월 궂은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건설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고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10월에는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을 또다시 찾으시여 치료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있는 아동병원의 이름을 《옥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6) 삼지연학생소년궁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11월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사무쳐오는 12월을 앞두고 유서깊은 력사의 땅 삼지연군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먼저 찾으신 곳은 아이들이 재능을 꽃피우고있는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이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여러차례나 다녀가신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이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과외생활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과 성악소조실, 물리소조실, 자동차소조실을 비롯한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하시며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궁전의 실내온도를 가늠해보시고 온도보장조건을 잘 세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열난방체계를 도입하여 온도보장문제를 원만히 풀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연혁소개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0여년전 당시에는 2층이던 궁전이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본관은 5층, 체육관은 3층으로 꾸려지고 극장도 개건하였다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였다. 이어 물리소조실에 들리시여 실습기재는 언제 받은것인가를 알아보시였고 자동차소조실을 찾으시여 아이들이 좋아하는가를 다정히 물으시였으며 소조원들이 좋아한다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체육관에 들리시여 야간에도 운동을 할수 있게 조명조건문제를 원만히 풀어주며 롱구대를 비롯한 기재들을 더 잘 관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궁전건물의 외형이 특색있고 비교적 손색이 없는것만큼 내부를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개건하자고 하시면서 궁전을 개건할 때 소조실들의 교구비품들을 모두 새로 만들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7)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도록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주는것을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우는 조선에는 곳곳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등이

세워져있다.

주체102(2013)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과 양로원, 양생원에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황해북도 중등학원 원아들은 언제나 원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한해동안에만도 여러차례나 선물을 보내주신 원수님의 은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는 편지를 쓰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에서는 선물전달식을 진행한 정형을 원아들의 편지와 선물을 받아안고 기쁨에 겨워 좋아라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까지 첨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들의 편지를 보시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도당위원회가 항상 관심을 두고 육아원, 애육원, 학원, 양로원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료해하면서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아이들, 늙은이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고 특히 아이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다고, 이것은 도당책임비서동무와 도안의 시, 군당책임비서동무들에게 자신께서 직접 주는 과업이라는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책임일군들이 해당 단위들에 수시로

찾아가 걸린 문제들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생활상애로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고있다.

9.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아이들은 자기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고와하는데로 마음을 쏟고 정을 붙인다.

조선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을 헤아려주시며 제일로 사랑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저저마다 편지를 올리고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바쁘신 속에서도 아이들의 편지를 일일이 다 보아주시며 친어버이의 정이 담긴 친필을 보내주시는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어린이들은 편지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자랑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뵙고싶은 간절한 그리움도 담으면서 우리의 하늘이시고 해님이신 원수님께서 밥도 꼭꼭 드시고 제때에 쉬셔야 꽃봉오리 우리들의 밝은 웃음이 있다고 썼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며 조직생활도 잘하여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조국을 빛내일 결의들을 담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이 올린 편지들에 친어버이의 정을 담아 보내주신 축복의 친필들.

그 일부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앞날을 축복해주신 민홍단, 리축복,

리경연, 류소금, 고후회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모시지 못한 설맞이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자니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 우리도 울고 모두다 울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효자동이로 억세게 자라나겠다는 결의를 담아 편지를 썼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히 자라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거라

김 정 은

2012. 2. 9》

이라는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성학원 소학반 강진이학생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시던 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언제나 기쁨을 드리는 전선길의 종달새가 될 결의를 담아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질 너의 목소리를 기대한다

김 정 은

2012. 2. 9》

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에 다니는 홍리향어린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창건 80돐과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공연에 출연한 자기가 노래 《만경봉의 무지개》와 《내동생 물음에 대답했지요》를 불렀을 때 제일선참 박수를 보내주시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원수님을 모시고 노래를

불렀던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 우리 말 공부도 잘하고 노래춤공부도 잘하여 우리 나라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노래하는 재능있는 조선의 딸이 되겠다고 결의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홍리향어린이의 편지를 보시고

《리향아! 더 밝고 아름답게 자라 훌륭한 조선의 딸이 되거라.

김 정 은

2012년 6월 27일》

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모란봉구역 긴마을1유치원의 류수연, 허준혁어린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여 선군동이수재가 될 결의와 여름방학때 펜글편지 150통을 써가지고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영웅아저씨들을 찾아간 자랑을 담은 편지를 보시고는

《수연아!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백점, 만점이다!

2012년 6월 13일

김 정 은》

《준혁아! 기특한 일을 했다. 정말 대견하구나. 어서 빨리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자랑스러운 우리 준혁이에게 빨간 별 5개를 준다.

2012. 10. 10

김 정 은》

이라는 가슴뜨거운 친필과 함께 손수 빨간별 5개를 그려 보내주시였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였던 평성시 평성소학교 정위혁학생은 학과학습에서 언제나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한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을 아침저녁 보면서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담아 삼가 편지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위혁학생의 편지를 보아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자랑을 안고 보내준 너의 편지를 기쁘고 반갑게 받아보았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더 잘하는 훌륭한 모범소년단원이 되기 바란다

김 정 은

2013. 2. 13》

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십t의 파철을 모아 강선의 용해공아저씨들에게 보내준 자랑과 작은 목선으로 파도세찬 바다를 건너가시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진《소년》호함선을 만들어 원수님을

꼭 모시겠다는 결의를 담아 해주시 해운소학교 림대혁 학생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훌륭한 학생입니다

김 정 은

2013. 2. 27》

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또한 모란봉구역 서흥소학교 김예광학생이 선군조선의 새 세대된 긍지를 안고 외국어학습을 더 잘하여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온 세상에 전하는 어학자가 될 결의를 담아 올린 편지를 보시고

《앞으로 꼭 훌륭한 어학자가 되세요

김 정 은

2013. 2. 27》

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미술가, 조각가가 되려는 꿈을 아뢰인 평천구역 륙교소학교 학생 박일범, 원산시 양지소학교 학생 문평린,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꽃바구니소년》으로 불리우는 자랑을 담은 순천시 서문소학교 학생 정호일이 올린 편지들을 보시고

《그림을 정말 잘 그립니다. 앞으로 꼭 훌륭한 미술가가 되세요.

김 정 은

2013. 2. 13》

《이런 훌륭한 재간둥이를 알게 되여 정말 기쁩니다

김 정 은

2013. 2. 13》

《좋은 일 많이 하는 〈꽃바구니소년〉을 알게 되여 정말 기쁘다.

김 정 은

2013. 2. 27》

이라는 다심하신 사랑과 축복이 어린 친필을 보내시였다.

또한 창광유치원의 림진우어린이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참 기특합니다. 사진에서 용감하고 대견한 진우어린이와 낯익은 섬초소의 항명어린이를 보니 정말 기쁩니다

김 정 은

2013. 2. 13》

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림진우어린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장재도에 갔다온 기쁨을 편지에 담으면서 할머니가 만든 폭신한 솜조끼를 입은 군대아저씨들도, 내가 준 자전거를 탄 항명이도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그 사진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싶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에서 1등을 한 자랑을 편지들에

담은 봉화화학공장유치원 차금석어린이와 중구역 련화유치원 리효은어린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여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세요.

김 정 은

2013. 2. 13》

《훌륭한 어린이가 되세요!

김 정 은

2013. 2. 13》

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 과학자아저씨들처럼 나라의 인재가 되려는 희망을 아뢰인 창광유치원 백남혁어린이와 총대가정의 피줄을 굿굿이 이어갈 맹세를 담아 올린 특류영예군인의 아들인 대동강구역 소룡2유치원 오철현어린이의 편지들에도

《의젓한 사진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보았다. 앞으로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거라.

김 정 은

2013. 2. 27》

《씩씩하게 자라서 용감한 인민군대가 되세요

김 정 은

2013. 2. 27》

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여 축복해주시였다.

남포외국어학원 학생 김유진은 13살에 중편실화소설을 창작완성하여 제1차 6.6절아동문학작품현상응모에서 1등을 한 자랑을 아뢰이며 훌륭한 문필가가 될 결의를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편지를 보아주시고

《유진학생이 보내는 중편실화소설 〈선군동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김 정 은

2013. 8. 14》

이라는 친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제일 좋은것을 다 안겨주신 원수님의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맹세를 담아 김정숙탁아소의 종업원들과 경상유치원의 교직원, 어린이들이 삼가 올린 편지에도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10. 아이들에게 보내주신 선물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은 아이들에게 안겨주시는 선물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아래에 그 일부자료들을 소개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3월 평양시의 교육부문 단위들에 콤퓨터와 수자식촬영기, 수자식사진기 등 90여종에 수천점에 달하는 현대적인 교육설비와 체육기자재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또한 훌륭히 일떠선 경상유치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어린이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6.1국제아동절을 맞는 유치원에 회전우주비행선, 회전강아지, 코끼리미끄럼대를 비롯한 유희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황해북도내 육아원, 애육원들에 애기영양즙, 닭고기완자통졸임, 홍당무우통졸임 등 수십t의 갖가지 식료품, 의약품을 보내주신데 이어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에게 싸리꿀, 밤꿀, 피나무꿀, 아카시아꿀을 비롯한 여러가지 꿀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1월에 창광유치원과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알알이 고른 왕밤을 보내주신데 이어 금성학원 학생들에게도 사랑어린 밤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포도원에서 따들인 하나같이 먹음직스럽고 잘 익은 포도를 평양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보내주시였다.

맛좋은 포도들을 한가득 받아안고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보며 탁아소, 유치원의 교양원, 보육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포도원의 첫물포도를 평양시안의 탁아소, 유치원들에 보내주시던 가슴뜨거운 사랑이 사무치게 안겨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온 나라 아이들의 웃음에서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계기때마다 전국의 소학교학생들과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였다.

그리하여 얼음으로 배길이 막힌 서해의 섬마을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1월초 서해의 자매도, 수운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에 비행기들이 날았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2월에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선물을 실은 비행기들이 또 날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각지 소년단야영소들에는 악기와 기타 문화용품을, 남포혁명학원, 남포시안의 중등 및 초등학원, 애육원, 육아원, 탁아소, 유치원들에는

첫물로 딴 감을 보내주시였다.

또한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 양생원의 원아들과 로인들, 보양생들에게 운동복일식과 학용품, 식료품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였다.

해마다 영양제와 각종 식료품, 의약품들을 보내주시고 4월의 명절을 맞으며 또다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는 원수님의 은정에 원아들과 교직원들은 고마움에 겨워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으며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 등 혁명학원들과 각지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의 원아들이 갖가지 옷들과 식료품을 받아안았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가는 이런 사랑과 배려에는 온 나라 아이들이 선군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훌륭히 자라날것을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11. 인류의 칭송,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전설같은 후대사랑에 대하여 세계인류가 격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 홈페지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정중히 모시고《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으시는분하면 누구나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꼽을것이다. 거침없고 활달하시며 여유있는 자세로 인민들과 교감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사람들이 감복하게 되는것은 **김정은**령도자의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다.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지어낼수도 강요할수도 없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는 원아들의 볼을 다독여주시고 식사하는 모습까지 오래동안 보아주시며 친부모보다 더 따뜻한 혈육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계속하여 글은 전례없는 대규모의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행사에 참석하시여 학생소년들을 곁에 앉히고 다정하게 담화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고 매혹적이였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정은**령도자께서 서해의 외진 섬초소 장재도에 오르시여 태여난지 6개월된 어린이를 한품에 안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의 살림집에 입사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시여서는 소학교에 다니는 둘째아들에게 그림그리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며 따뜻이 애무해주시였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후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모든것을 다 돌려주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의 후대사랑의 위대한 전설은 오늘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 **김정은**령도자를 따라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고 격찬하였다.

인디아신문《뉴델리 타임스》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후대들에게 베푸시는 각별한 사랑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후대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다고 하였다.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뻬루민족독립운동과 **김정일**장군 뻬루친목회는 공동성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서 축하연설을 하신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에 기초하고있는 그이의 가장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의 집중적표현이다, 오늘 세계적으로 후대교육, 후대교양이 심각한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있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조선의 어린이들은 미래를 떠메고나갈 훌륭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다, 미제의 반공화국책동이 전례없이 악랄해지고있는 속에서도 조선소년단 창립일을 성대히 경축한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나라들 특히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고 하였다.

볼리비아조선친선협회는 조선은 어린이들의 앞날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나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하연설과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를 통하여 조선의 빛나는 미래를 락관하게 되였다고 성명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 주석단에 당과 국가간부들이 아니라 어린이들과 함께 나오신것은 조선에서 어린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사회주의와 미래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내세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축행사대표들을

위하여 비행기까지 동원되는 국가적조치같은것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조선에서는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조선어린이들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어린이들도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것이다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쑤아라 까르야》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내용을 전하면서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뜨거운 인간애와 함께 앞날을 확신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국제사회계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김정은**령도자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 **김정은**령도자를 따라 희망찬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원수님과 아이들

집필: 김경애, 강현숙

편집: 장경남

장정: 김광수　　편성: 장향옥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4(2015)년 1월

ㄱ - 483613
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4(2015)년

ISBN 978-9946-0-1221-6

9 789946 012216